

일반공동연구유형

연 구 계 획 서

사 업 명(유형)		2022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흐름의 공간으로서 미래 한반도: 이동을 통한 통치, 개인의 삶, 지역발전의 순환 통치-일상-발전 순환을 통해 본 미래 한반도: 이동/이주의 역동성과 과제 탐색 탈분단 한반도 내 이주와 사회통합: 통치, 일상, 발전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영 문	

<목차>

I. 연구요약	2
II. 연구내용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내용	11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13
4. 결과 활용방안	15
5. 기타사항	17
6. 추진일정	17
7. 참고문헌	18

I. 연구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본 연구는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이동, 통치, 지역발전, 개인들의 삶을 순환적이고 진화적으로 보는 개념에 기반하고 유사한 이주민 사례들을 활용하여 미래 개방된 한반도의 이동, 이주 및 사회통합 문제를 조명한다. 현재보다 개방되지만 정치적 긴장이 남아있는 과정에 놓인 남북한 사회에서 통치의 성격과 (비)이동이 어떻게 재편되고, 그 변화가 노령화, 노동시장 변동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것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적이며 경험적인 연구이다. 미래 한반도 상황을 유추하기 위해서 유사한 지점이 있는 통일 독일, 조선족, 탈북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사례들을 기반을 삼아 그 사례가 함의하는 여성이주, 비공식적 경제활동, 민족적/국가적 정체성과 정보이동의 영향, 급속히 발전하는 고향 (북한)의 지역발전의 주제를 끌어와 미래 한반도 사회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는 정책적, 교육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정학, 이주민, 여성 이주, 지역발전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본 접근을 극복하여, 분단된 국가의 재통합, 이주의 젠더화, 지역발전이 연결, 순환된 관계에 있고, 국가의 통치와 개인들의 내면화와 생존전략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회변동 앞에서 국가와 개인들이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함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특히 미래 한반도에서 북한인이 한국으로, 한국인이 북한으로 일, 교육, 주거를 위해 이동, 정착하는 과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기존의 통일을 과정이 아닌 상태로 보는 접근, 이주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논의, 한국사회로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다문화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여, 남북한 인구이동을 통치, 지역발전, 개인의 정체성 고민과 연결된 관점에서 짚어본다. 다양한 인문사회계열 학자들이 미래 한반도가 직면하게 될 사회변화와 문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진화방향을 생각하면서 학계와 정책에 함의점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문적 기여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한반도 미래와 탈북민에 관한 연구와 논의로 북한,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정치적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어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인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하지만 완성된 상태로서가 아니라 지나긴 과정으로서의 통합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할 것이며, 그렇다면 현재 상황보다 개방적인 한반도 상황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과 여전한 긴장과 새로운 문제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정된 시나리오 중심의 사고는 연구대상과 방법을 정하기 쉬운 이점이 있지만, 통치와 개인의 삶, 경제활동과 문화적 정체성, 이동과 지역발전의 순환적 관계를 보기 힘들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항해하는 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순환, 진화를 이해해야 문제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연구는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의 대안으로서 과정성, 교차성, 항해성을 지닌 한반도를 상징하여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환에 기여한다. 그 접근을 위해 인문사회학 학제간 연구방법을 구사하는 방법론적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 사회적 기여

한국사회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군사적 대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화할 것을 규범으로 내세웠다. 한국사회는 21세기 들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이주민과 한국사회가 상호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필요에 의한 수용과 이주민 배제의 분위기가 뚜렷한 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민족인 중국 조선족 이주민과 탈북민들의 정착이 쉽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한체제의 유지 속에서 그런 시나리오는 실행이 어려울 것이고 탈북민들의 적응과 동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되었다. 현재 이루어지는 종전 논의와 통일 독일 이후 수십년에 걸친 사회변동과 통

합 과정을 참고해 보면, 독일보다 정치적 긴장이 더한 한반도의 미래는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갈 것이지만 그 과정이 길 것이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가야 하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래 한반도를 도달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한반도 내외의 상황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간 지역간 인구(비)이동은 통치의 전략이면서 해결할 문제이고 사람들의 생존의 전략이자 일상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이다. 무엇보다 인구가동은 통치주체와 사람들, 경제 문화 영역의 기존 경계가 흔들리고 재정립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동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글로벌시대와 동아시아 정치적 긴장 속에 놓인 미래 한반도에서 생존전략이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이동이 관통하는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대안적 시각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학문후속세대양성

본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들은 대학교육, 조교교육을 통해 이 주제에 관심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새로운 시각, 개념, 연구방법을 습득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탈북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 여성 탈북민의 활동, 이주민 비공식적 경제활동, 한국사회의 담론의 문제를 현장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면밀히 관찰하여 분석하는 힘을 기름으로써 학문 후속세대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미래 한반도의 상황을 관련 개념과 유사사례에서 함의를 가져오고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연구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들은 잠재적 연구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교육 연계 방안

본 공동연구는 한국사회 내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제를 다루므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고등학교의 진로탐색과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이동/이주, 이주민과

	<p>탈북민 이해에 관한 대중강연, 교원 대상 강연을 통해 연구성과를 교육과 연계시킬 것이다. 본 연구단의 연구성과가 대학연구소와 지역 탈북민, 통일 관련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기관들과 통일과 이주와 관련한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포용적 미래 한반도로 가는 방안을 논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p>
<p>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p>	<p>본 연구는 현재와는 판이한 한반도 상황과 한국으로 동화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기존 통일과 탈북민에 대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개방에서 이주, 이동을 둘러싼 통치와 사람들의 삶의 전략과 이주가 가져오는 경제활동, 정체성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한반도 사회가 가지게 될 새로운 문제와 해결방법을 진단하고, 단편적인 통일 관점에서 벗어나 순환적, 진화적 이해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큰 틀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다.</p> <p>첫째, 이동통치, 비공식성, 이주의 젠더화, 사회적 향해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통일과 한반도 논의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과정적, 순환적, 진화적 접근의 유용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p> <p>둘째, 탈북민, 이주민과 관련 한국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현장 연구를 통해 보면서 이주의 젠더화, 비공식성, 정체성 재협상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성격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p> <p>셋째, 통일, 이주민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비교분석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미래 한반도를 조망한다. 미래 한반도의 사회혁신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실천전략을 구상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본다.</p> <p>이상의 연구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된다.</p> <p>1. 이론적 접근: 이동통치, 이주의 젠더화, 비공식성, 사회적 송금, 정체성 정치, 사회적 향해 개념을 검토, 발전시킨다. 과정</p>

	<p>적, 순환적, 진화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미래 한반도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p> <p>2. 경험적 접근: 기존의 통일, 개방, 이주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면밀히 리뷰하여 유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조사에 밑바탕을 제공한다. 현장조사는 통계자료 분석으로 개괄하는 작업과 함께 심층적인 관찰을 위하여 참여관찰,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과 같은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미디어 분석, 문학작품, 영화분석을 통해 다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p> <p>3. 정책적 접근: 앞선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개방된 미래 한반도를 과감하고도 섬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사회 공감대 형성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p>
<p>키워드(Keyword) (한글)</p>	<p>이동, 이동통치, 탈북민, 경제활동, 지역발전, 초국가주의, 비공식성, 정체성, 여성 이주,</p>
<p>키워드(Keyword) (영어)</p>	

II.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인문사회과학 학제간 연구로서 이동, 통치, 지역발전, 개인들의 삶을 과정적, 순환적, 진화적인 접근으로 탐구한다. 이주/이동, 정착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기존 통일, 이주민 관련 사례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점점 개방하는 미래 한반도에서 이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변동, 사회통합 문제를 조명한다. 현재보다 개방되지만 정치적 긴장이 남아있는 과정에 놓인 남북한 사회에서 통치의 성격과 (비)이동이 어떻게 재편되고, 그 변화가 노령화, 노동시장 변동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것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적이며 경험적인 연구이다.

남북한 분단, 통일, 탈북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사회 통치와 개인의 삶 문제가 다소 분리되어 별개의 분야를 이루었다. 남북 통일이라는 일종의 상태를 가정하거나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변동을 논의하였고, 독일 통일 사례가 남북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참고로 논의되기도 했다. 탈북민에 관한 연구는 그들이 북한에서의 삶, 한국에서의 적응, 건강, 정체성 문제에 집중하였고, 다른 이주민, 난민 연구는 탈북민 연구와 거리를 두고 미래 한반도와 연관되지 않았다.

본 연구팀은 기존의 연구와 논의가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과 이주가 사회통치의 수단이자 한 부분으로 개인들의 삶에 연결되는데 그 연결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적인 접근과 탈북민 행태적인 접근 사이에는 거리와 긴장이 존재하였다.

둘째, 통일을 과정이 아닌 한 고정된 상태로 보면서 마치 통일이 되면 이동, 이주가 자유롭고 경제활동이 현재 한국사회의 상태가 확대될 것이며 단지 한국에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여겼다. 또한 통일 사례인 독일 사례의 함의를 가져올 때 사람들의 이동과 일상의 면에서 한국적 맥락화가 부족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남북한의 정치적 긴장과 냉전 관계가 다른 형태로 남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로 이동한 탈북민 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동화와 적응을 당연시

하며 그 과정을 살핀 접근이었다. 그런 동화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압박은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장벽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다른 이주민 연구와 동아시아 지정학적 변동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함의를 가져와 독일 사례의 해석과 결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다.

대안적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이동통치, 비공식성, 이주의 젠더화, 사회적 항해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통일과 한반도 논의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과정적, 순환적, 진화적 접근의 유용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존 통일 논의와 탈북자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평가하고 그 대안으로서 초국가주의와 이동통치의 유용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둘째, 탈북민, 이주민과 관련 한국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현장 연구를 통해 보면서 이주의 젠더화, 비공식성, 정체성 재협상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성격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국내외 탈북민 연구에 대한 현장 연구와 독일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와 현장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개방된 한반도가 어떻게 로컬화하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독특한 다문화 사회로 승화되는 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셋째, 통일, 이주민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비교분석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미래 한반도를 조망한다. 미래 한반도의 사회혁신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실천전략을 구상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본다.

본 연구는 현재와는 판이한 한반도 상황과 한국으로 동화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기존 통일과 탈북민에 대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개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미래를 바라본다.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개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경제, 문화, 정치적 상황과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이동일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인구가동이 가져온 변화와 같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이동과 정착은 노동시장, 경제활동, 문화적 정체성, 사회통합에 있어서 변화와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주, 이동을 둘러싼 통치와 사람들의 삶의 전략과 이주가 가져오는 경제활동, 정체성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 이주, 인구문제는 서로 얽혀있고 순환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미래 한반도 사회가 가지게 될 새로운 문제와 해결방법을 진단하고, 단편적인 통일 관점에서 벗어나 순환적, 진화적 이해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국내외에 있는 탈북민

을 조사, 연구하여 미래 한반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이론적이며 경험적인 연구이다.

이상의 연구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첫째, 이론적 접근을 위해 이동통치, 이주의 젠더화, 비공식성, 사회적 송금, 정체성 정치, 사회적 항해 개념을 검토, 발전시킨다. 과정적, 순환적, 진화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미래 한반도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경험적 접근: 기존의 통일, 개방, 이주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면밀히 리뷰하여 유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조사에 밑바탕을 제공한다. 현장 조사는 통계자료 분석으로 개괄하는 작업과 함께 심층적인 관찰을 위하여 참여 관찰,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과 같은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미디어 분석, 문학작품, 영화분석을 통해 다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정책적 접근: 앞선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개방된 미래 한반도를 과감하고도 섬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사회 공감대 형성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미래 한반도 상황을 유추하기 위해서 유사한 지점이 있는 통일 독일, 조선족, 탈북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사례들을 기반을 삼아 그 사례가 함의하는 여성이주, 비공식적 경제활동, 민족적/국가적 정체성과 정보이동의 영향, 급속히 발전하는 고향 (북한)의 지역발전의 주제를 끌어와 미래 한반도 사회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는 정책적, 교육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정학, 이주민, 여성 이주, 지역발전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본 접근을 극복하여, 분단된 국가의 재통합, 이주의 젠더화, 지역발전이 연결, 순환된 관계에 있고, 국가의 통치와 개인들의 내면화와 생존전략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회변동 앞에서 국가와 개인들이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함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특히 미래 한반도에서 북한인이 한국으로, 한국인이 북한으로 일, 교육, 주거를 위해 이동, 정착하는 과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기존의 통일을 과정이 아닌 상태로 보는 접근, 이주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논의, 한국 사회로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다문화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여, 남북한 인구가동을 통치, 지역발전, 개인의 정체성 고민과 연결된 관점에서 짚어본다. 다양한 인문사회계열 학자들이 미래 한반도가 직면하게 될 사회변화와 문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진화방향을 생각하면서 학계와 정책에 함의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미래 한반도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교육하고자

한다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포용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으로 이주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미래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정체성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과정은 단면적이 아니라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기존의 탈북자 연구와 통일에 관한 논의는 다분히 한국 대한민국 중심이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흡수,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인 조선족 사례 연구와 독일 인구이동 사례 연구는 사회통합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과연 지속가능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정책적 교육적 연구이기도 하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팀은 이주 연구, 통일 독일사례, 탈북민 사례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서 나온 개념들을 미래 한반도 상황에 맞게 맥락화할 것이다. 이주와 정착 과정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행위 주체자들이 끊임없이 불안정한 맥락에서 사회적 항해 (social navigation)를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 이론적 배경

1) 이동통치 (governmobility) - 이동을 통한 통치와 통치논리의 내면화

오늘날의 이동, 이주가 주요 사회현상이 되는 동력에 대해 이동통치 개념은 이동과 통치의 관계를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이동통치는 푸코의 통치성 (governmentality) 개념(Foucault, 1978)을 발전시킨 것으로 ‘(비)이동(을 통한) 통치’를 뜻한다. 이동과 비이동을 규제, 고무함으로써 통치와 안정이 형성, 재형성되는 것(Baerenholdt, 2013)이며, 이동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이 통치의 목적이 아니라 이동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며 이동이 통치 자체의 일부분이 된다 (Baerenholdt, 2013). 이동은 권위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권위가 되는 것이다(Cresswell, 2006, 2014).

이동통치가 현대사회의 이동, 이주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유는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고 자발적인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동, 이주, 혹은 머무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사회의 규범, 상실, 이데올로기, 젠더 역할을 이동통치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통치의 성격(Sheller, 2016)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의 정책과 담론에 있는 논리에 개인들의 일상실천이 부합하여 강제적인 제도

보다 더 자연스럽고 그 결과 자발적 강제성을 가져온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공간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여겨지는 상식 형성이 중요한 통치술이 되는(Baerenholdt, 2013) 것이다.

이동통치의 제도적 형태인 이주정책은 이동을 동원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통해 규범의 형성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을 때 중국 조선족 유입을 장려하고, 결혼 시장 수요, 공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의 결혼 이주 (Lu 외, 2016: 이병렬, 김희자, 2016)를 장려하는 식이다.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구속되는 것도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이동통치이겠지만, 남북한이 개방되고 이동규제가 점점 풀릴 때 간접적이지만 더 적극적인 이동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 사례도 개인들이 이주의 원인(push factor 혹은 pull factor)에 바탕해 움직인 자발적인 이주라 할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이 자기 삶을 적극적, 진취적으로 계획을 하고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환경을 보고 이동을 했다. 물리적, 제도적 강제를 통한 권력이 아니라 도처에 있는 권력, 관계적이며 이동하는 끊임없이 형성 중인 권력이라는 권력 개념을 통해 푸코는 근대국가의 성립이 합리화를 통해 영토를 규정하고 장악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통하여 통치한다는 것은 이동에 내재되어있는 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며 이동이 통치 자체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erenholdt, 2013: 27-30). 이동은 권위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권위가 되는 것이다 (Cresswell, 2006, 2014).

이동통치에서 통치는 정부의 통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제도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주정책도 포함한다. 이동을 동원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통해 노동인구가 충분치 않을 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거나 결혼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의 결혼 이주 (Lu 외, 2016: 이병렬, 김희자, 2016) 를 장려한다. 특히 선호되는 유형인 고학력 기술직 이주노동자의 이주를 장려하고 (Qin, 2015),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 조선족 유입을 기회로 삼아 정책을 마련하고, 한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의 유입책을 마련한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 복지를 개인이 이동과 이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는 전략으로 이동통치가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주자, 난민 유입을 통제하거나 성장을 규제하는 정책 등을 통해 이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보수적인 정권하에서는 선호하는 인구 유형과 그렇지 않은 인구 유형을 차별하는 정책이 더욱 선명했다.

이동통치의 통치는 강제가 아니라 훈육적인 효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훈육적인 이동 또한 단지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발달된 기술, 사회규범, 상식, 표준 (conduit, conduct,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김동완, 신혜란, 2016), 이데올로기, 젠더 역할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Sheller, 2016). 국가나 사회의 이동통치 논리를 개인이 내면화하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권력, 관계로서의 권력, 통치의도가 일상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난다.

개방된 한반도 상황에서 이동통치는 더욱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방된 한반도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의 이동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 내 이동의 증가,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동하는 한국인들의 이동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 각 사회의 경제, 인구, 정치 상황에 비추어 이동과 비이동을 재배열하려는 노력이 나타날 것이고, 한 번 시작된 정당화 논리는 일상문화, 이데올로기 형태로 개인들에게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사람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이동통치의 한 부분이다. 국가 또한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주체 중 하나로써 이동을 통해서 통치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불균형을 강조하는 논리와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공통적으로 인구가 거론되는 것도 이동통치의 일환이다. 한 지역의 인구는 경제력의 원천이면서 일자리를 포함한 삶의 조건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에게도 이촌향도를 비롯한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큰 이유는 송출지와 정착지의 임금, 노동시장, 삶의 질의 격차이다. 독일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개방된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의 지역격차는 인구이동의 큰 원인이자 정책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특히 2020~2065년까지 한국이 고령화-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대응이 남북간의 교류로 이어진다면, 남북의 상호 상생효과가 이동통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체계적 준비와 대응에는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질서, 비핵화,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이 점진적으로 경제발전을 꾀하고 그 과정에 남북 교류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이 30년에 걸쳐 다층적 통합이자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동서독 통일로 발생한 급격한 인구이동과 경제적 부담을 회복하여 (최지영, 2020), 최근에는 동독 노동생산성과 소득이 서독의 85% 수준이고 실업율도 격차 크지 않은 수준에 도달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14) 그 과정에서 독일 통일의 외교와 지정학, 정치 통합 노력(Dalia Marin et al. 2018), 사회경제 변동, 지역통합이라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동통치의 개념을 통해 본다면, 서독에서 전략적으로 많은 고위층 인력(사법, 행정, 교육 등)

을 동독에 파견한 것과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젊은 여성이 많았다는 것은 국가의 이동통치 전략과 그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전략의 특징을 보여준다. 기존문헌은 또한 자본의 이동에 집중하여 국제적 이주자를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국가와 개인이 불안사회에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이주 정책을 비롯한 사회의 이동, 개인의 이주 실천은 동원과 자발이 얽혀있는 산물이며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원인인 동시에 국가와 개인의 전략이다.

2) 이동의 젠더화, 비공식성, 이주여성의 성장

이동의 여성화, 이동의 젠더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자주 보여온 추세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출발지보다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사회로 이주하여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많은 국제이주가 이루어졌다. 이주의 젠더화와 여성이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당장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사례와 통일 독일에서도 여성이주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탈북민은 현재 3만3천여명인데, 이들 중 여성은 72%를 차지한다. 독일에서 통일 이후 20년 동안 거의 280만 명의 젊은 여성이 교육과 노동의 이유로 이주하였다. 서독기업에서도 동독 남성보다 동독 여성을 선호하였고, 구 동독 지방 여성들의 학력이 높고 직업의식(95%의 취업률)이 투철한 노동 문화도 한몫하였다.

이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한반도에서 남북 왕래가 허용되면 어느 집단이 이주를 많이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주의 여성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의 이주는 출발지(동독과 북한)의 고령화 현상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동독여성과 서독남성의 결혼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성에 대한 인식차이, 종교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이주가 가져오는 영향 중 큰 부분이 돌봄노동의 이주화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돌봄노동에서도 큰 부분을 중국 조선족 이주여성이 맡고 있는데, 개인적 대면 서비스 성격인 돌봄노동은 다양한 출신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특징이 조우하는 접촉지대(contact zone)를 형성한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은 서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효과 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경계 때문에 서로에 대한 편견과 이미지를 더 고정시키고 출신지의 위계를 개인적인 선에서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정체성 정치가 강

한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1세대의 언어는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차별하는 직간접적인 기제가 된다.

또한 이주여성이 비공식 노동시장과 삶의 형태를 담당하면서 학계와 정책부문의 관심을 받았다. 사회 불평등이 증가하고 경제선진국에서도 도시 비공식성(urban informality)이 오히려 증가(Mukhija and Loukaitou-Sideris, 2015; Kudva, 2009; Roy, 2005)하면서 이주 여성은 비공식 경제활동을 담당했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드는 초법적(trans-legal)인 영역을 만드는데, 단지 비공식적 활동을 하는 이주민의 전략 뿐 아니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선주민의 요구와 협력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 비공식 경제 레짐의 출현과 탈북민의 상황이 그들, 특히 탈북민 여성의 자영업 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탈북민 여성의 경제 정착, 경제 적응이나 활동 현황 적응 요인(정진화, 송상희, 2015)을 보면 한국 여성보다 탈북민 여성들의 고용률과 실업률(11.4% 한국여성 실업률은 4%)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탈북민 남성과 비교해도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아 이들의 높은 경제활동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1세대 탈북민 여성의 위치는 앞에서 살펴 본 동독 여성 이주민과는 사뭇 다르게, 젠더와 이주민의 교차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통하지만 축적한 인적자본을 거의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는 매우 제한된다.

최근 정책지원의 초점이 탈북민의 자립 자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분야, 단순 노무 분야에 지나치게 치우친 고용이 긍정적인 자립과 자활 경험을 가져다 주기 어렵고 노동시장 분절 구조 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의한 취약성, 즉 심신 불안정, 차별 경험 등도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 탈북민 여성의 공식부문 고용의 경험은 이들 여성으로 하여금 공식노동시장 진입보다는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추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편 영국 탈북민의 경우(Shin, 2021)와 동독여성의 사례는 이주여성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탈북민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기업활동과 조직 활동을 하는 것의 과정을 살펴보고 함의를 찾아내는 것은 미래 한반도 상황에 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이주의 젠더화가 가져오는 적극적인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미래 한반도에서 북한 여성의 이주가 주가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그들이 사회변화를 이끌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동화주의 대 초국가주의와 정체성

이주민이 유입된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핵심적인 개념은 동화 (assimilation)와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이었다. 1990년대까지 이주민이 도착사회의 일원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동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시카고 학파의 동화이론 (assimilation theory)이 대세였다. 동화이론은 또한 이주민 밀집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많은 경험연구에서 보인 것은 여전히 많은 이주민들이 적응, 동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옛 정체성을 간직하고 오히려 발전시킨다는 점이었다. 이주민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사회운동에도 힘입어 초국가주의 개념 (Vertovec, 2009; Katila and Wahlbeck, 2012; Schiller et al., 1992)은 동화이론을 대치하는 이론틀로 떠올랐고, 이주민 밀집지역도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하는 사례연구가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동화주의와 초국가주의가 대립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두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맥락에 따라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통신수단기술의 발달로 이주민이 떠난 사회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민들의 생활에서 초국가주의 모드와 통합의 모드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실적으로 이주민이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동화정책 기초를 유지하고 타협적인 개념으로 사회통합을 제시한다.

초기의 이주민 연구는 동화, 적응, 저항과 같이 이주민과 원주민들 사이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소위 이주민 직업이라는 몇 직종에 몰려 있고 주거지에서도 수용사회 원주민들과 그다지 많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 또한 거주활동, 고용관계, 생산, 소비, 정책, 교육에서도 초국가주의적 실천 (transnational practices)이 나타났다 (Müller and Wehrhahn, 2013; Dahinden, 2009; Carling, 2008; Levitt and Schillder, 2004).

상호작용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Wang et al., 2015) 상호작용이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재생산하고 노동관계의 위계질서와 분화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 (Liu et al., 2012). 이 정체성의 유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협회와 종교기관이다 (Ehrkamp and Nagel, 2012). 이런 조직생활을 통해 떠난 사회와 정착한 사회 두 곳에 동시에 뿌리내리면서도 떠나는 과정을 형성한다 (Western, 2007). 특히 현재 한국사회와 독일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자국 중심성과 보호주의가 강해서 사회통합이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지구화와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독일에서 지역 박탈감과 우익포퓰리즘, 정체성 정치가 강해지고, 독일의 의회제, 연방제, 정당 정치 시스템과 통일 이후 사회 균열의 민주적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Davide Cantoni et al. 2018).

이주민 자영업에서도 그 민족 네트워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논의가 초국적 민족 네트워크 (transnational ethnic networks)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주자들이 선주민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주민들의 민족에 바탕한 네트워크가 신뢰에 기대어 사업을 하는 것에 많은 연구가 있었다. 최근에는 송금이 투자의 형태로 발전하여 유입국이 아니라 송출국, 즉 본국에서 사업과 투자를 하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발전할 경우 정보를 위해 한국인-북한인-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출신국, 출신지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한국 상황에서 담론과 정책에서 곤잘 언급되는 ‘문화적 차이’ 용어에서 문화가 배제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같은 문화를 지니고 있거나 문화적인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을 얘기할 때는 이 문화가 연결 짓는 하나로 이어주는 기제로 사용이 되는데 막상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왔을 때 탈북자로 됐을 때는 이 사람들과 남한 주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고 이를 적응의 걸림돌로 지적하는 바가 두드러진다는 것에서 탈북민과 남한 주민 사이에서 문화가 배타적 구분짓기의 기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가령 같은 언어인데 그 사실보다 말투, 억양,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논의의 중점이 옮겨오는 것이다.

문화라는 범주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성,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는 주로 주류집단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문화적 차이 담론은 주류집단이 우위를 차지하는 권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남한의 문화가 표준이 되고 탈북민은 일탈, 제외, 예속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Shi-xu and Maier, *Read the Cultural Other* 2005: 38). 언어, 역사를 공유하고 외향에서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탈북민의 유사성 때문에 불편함이 더 가중된다. 이 사회적 집단을 처리하는 것이 남한 사회 입장에서 보면 까다롭기 때문에 편리한 타자화를 위해 문화적 차이 담론을 가져온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문화적 차이는 아이콘화 (iconization)된다. 아이콘화는 인텍스를 만들어서 인텍스가 가지게 되는 사회적 의미 사이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연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Irvine and Gal, 2000)이다. 시각적 차이로는 이질성을 돋보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 다음으로 청각적인 차이에 집중하여 억양, 발음, 단어, 화법에 집중하여 문화적인 차

이라고 얘기하는 식이다. 그 차이가 심성이나 사고와 직접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자연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문화적 차이 담론은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남북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협력이나 교류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탈북민들도 당연한 듯이 문화적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문화적 차이가 해소가 되면 적응성을 높이는 것인가, 동등한 협력관계가 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남한주민과 탈북민 사이의 차이를 타자화시키는 배제와 분리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공존의 언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연차별 3가지 연구 주제는, 총 5개의 세부연구주제들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되는 핵심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1. 이동통치, 이주의 젠더화, 정체성 정치 통합적 이론 탐색		
세부연구주제	핵심연구내용	연구방법
이동, 통치, 정체성의 통합적 이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통일 독일 사례, 이주민 연구의 개별 접근 비판 - 이동통치와 사회적 향해 이론 연구 - 이주의 젠더화와 인구학적 이론 연구 - 정체성 정치의 역동성 이론 연구 	문헌연구 이론적 고찰 사례연구 파일럿 현장조사

2. 현장 연구		
세부연구주제	핵심연구내용	연구방법
미래 한반도 사회 상황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과정과 결과 분석 - 통일 전환 과정의 개인적 네러티브 분석 	아카이브 분석 영화, 문학 분석
관련된 이주민 사례의 특성과 미래 한반도 함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 이주민의 노동시장참여, 창업, 조직활동 연구 (탈북민, 조선족) - 탈북민의 1.5세대, 2세대의 경제 활동 - 탈북민과 다른 이주민의 비공식 노동 분석 - 출발지에 끼치는 영향 분석 - 미래 한반도 여성 이주 관련 사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여성 돌봄노동) - 한국사회의 포용문화 분석 	현장조사 참여관찰 심층면담 미디어 분석

3. 방안과 과제 탐색		
세부연구주제	핵심연구내용	연구방법
미래 한반도의 사회통합의 방안과 미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고령화 현상과 한반도 개방의 필요성 - 한국의 다문화 방식의 비판적 재개념화: 초국적 개방 	사례 종합분석

	주의 - 사회통합의 현실 진단과 가능성 탐색 - 사회통합의 정책 방안 구축 -	
--	--	--

<그림 1> 주요 연구 주제와 핵심연구내용

가. 연구 내용

1) 1년차 연구 내용: 이동통치, 이주의 젠더화, 정체성 정치의 통합적 이론 탐색

1년차 연구에서는 이동통치, 이주의 젠더화, 정체성 정치 개념을 이론적으로 리뷰 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다. 통일, 통일 독일 사례, 이주민 연구의 개별적이고 단편적, 상태적 접근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통치와 개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항해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핵심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통일, 통일 독일 사례, 이주민 연구의 개별 접근 비판
- 이동통치와 사회적 항해 이론 연구
- 이주의 젠더화와 인구학적 이론 연구
- 정체성 정치의 역동성 이론 연구

2) 2년차 연구 내용: 국내외 탈북민과 다른 이주민 현장 연구

국내외 탈북민과 한반도 사례에 함의를 주는 다른 이주민의 경제활동, 조직활동, 일상에 대한 현장 연구와 독일, 중국과 같은 통일 관련 사례를 통해 미래 한반도 사회 상황 속 이동, 이주에 대한 함의를 가져온다. 현장조사, 참여관찰,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분석, 영화, 문학, 미디어 분석도 이용하고 연구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2년차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통일과정과 결과 분석
- 통일 전환 과정의 개인적 네러티브 분석
- 한민족 이주민의 노동시장참여, 창업, 조직활동 연구(탈북민, 조선족)
- 탈북민과 다른 이주민의 비공식 노동 분석
- 출발지에 끼치는 영향 분석
- 미래 한반도 여성 이주 관련 사례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조선족 여성 돌봄

노동)

○ 한국사회의 포용문화 분석

3) 3년차 연구내용: 방안과 과제 탐색

3년차에는 사례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이론틀을 수정, 발전시키고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고령화 현상과 한반도 개방의 필요성
- 한국의 다문화 방식의 비판적 재개념화: 초국적 개방주의
- 사회통합의 현실 진단과 가능성 탐색
- 사회통합의 정책 방안 구축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진은 이론 연구, 아카이브 자료 수집과 분석, 현장조사 질적연구, 미디어 분석 등이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이론적, 경험적, 정책적 접근으로 구분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론적 접근: 이동통치, 이주의 젠더화, 비공식성, 사회적 송금, 정체성 정치, 사회적 향해 개념을 검토, 발전시킨다. 과정적, 순환적, 진화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미래 한반도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경험적 접근: 기존의 통일, 개방, 이주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면밀히 리뷰하여 유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조사에 밀바탕을 제공한다. 현장조사는 통계자료 분석으로 개괄하는 작업과 함께 심층적인 관찰을 위하여 참여관찰,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과 같은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미디어 분석, 문학작품, 영화분석을 통해 다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정책적 접근: 앞선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개방된 미래 한반도를 과감하고도 섬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사회 공감대 형성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1)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참여구분	소 속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연구 총괄 - 이동통치, 비공식성, 이주의 젠더화 이론 발전 - 국내 탈북민 공식적, 비공식적 경제활동 현장조사 - 베트남 이주여성, 국외 탈북민 활동 현장조사 - 미래 한반도 이동의 역동성과 영향 종합분석 	1
	신혜란		
일반공동연구원 1			
일반공동연구원 2			
일반공동연구원 3			
일반공동연구원 4			
일반공동연구원 5			
일반공동연구원			

2) 연구진 역량

가. 연구책임자의 역량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도시개발 정치를 주제로 석사학위, 미국 엘에이 한인 이주여성의 젠더역할과 일상문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5년부터 런던대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조선족, 탈북민 사례 연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국, 영국,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사례지역의 디아스포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연구 성과를 내었다. 연구책임자는 또한 발전국가, 도시재생, 문화도시전략, 스마트도시 사례로 도시정치, 정치지리 분야 연구도 활발히 하였다. 또한 다수의 국제 현장조사, 협력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국내외 현장조사와 공동연구를 이끌고 수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연구책임자는 이동, 통치, 이주민의 경제적 정치적 활동, 정체성에 관한 세계적 동향과 한국적 맥락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선도하였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주제들에 대해 포스트구조주의적 해석과 순환적 관계의 이해를 하고 있어 미래 한반도에서 이주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나. 공동연구진의 역량

4. 결과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문적 기여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한반도 미래와 탈북민에 관한 연구와 논의로 북한,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정치적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어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인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하지만 완성된 상태로서가 아니라 기나긴 과정으로서의 통합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할 것이며, 그렇다면 현재 상황보다 개방적인 한반도 상황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과 여전한 긴장과 새로운 문제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정된 시나리오 중심의 사고는 연구대상과 방법을 정하기 쉬운 이점이 있지만, 통치와 개인의 삶, 경제활동과 문화적 정체성, 이동과 지역발전의 순환적 관계를 보기 힘들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항해하는 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순환, 진화를 이해해야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연구는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의 대안으로서 과정성, 교차성, 항해성을 지닌 한반도를 상정하여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환에 기여한다. 그 접근을 위해 인문사회학 학제간 연구방법을 구사하는 방법론적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 사회적 기여

한국사회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군사적 대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화할 것을 규범으로 내세웠다. 한국사회는 21세기 들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이주민과 한국사회가 상호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필요에 의한 수용과 이주민 배제의 분위기가 뚜렷한 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민족인 중국 조선족 이주민과 탈북민들의 정착이 쉽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한체제의 유지 속에서 그런 시나리오는 실행이 어려울 것이고 탈북민들의 적응과 동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되었다. 현재 이루어지는 종전 논의와 통일 독일 이후 수십년에 걸친 사회변동과 통합 과정을 참고해 보면, 독일보다 정치적 긴장이 더한 한반도

의 미래는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갈 것이지만 그 과정이 길 것이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가야하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래 한반도를 도달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한반도 내외의 상황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간 지역간 인구(비)이동은 통치의 전략이면서 해결할 문제이고 사람들의 생존의 전략이자 일상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이다. 무엇보다 인구이동은 통치주체와 사람들, 경제 문화 영역의 기존 경계가 흔들리고 재정립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동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글로벌시대와 동아시아 정치적 긴장 속에 놓인 미래 한반도에서 생존전략이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이동이 관통하는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대안적 시각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학문 후속세대양성

본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들은 대학교육, 조교교육을 통해 이 주제에 관심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새로운 시각, 개념, 연구방법을 습득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탈북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 여성 탈북민의 활동, 이주민 비공식적 경제활동, 한국사회의 담론의 문제를 현장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면밀히 관찰하여 분석하는 힘을 기름으로써 학문 후속세대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미래 한반도의 상황을 관련 개념과 유사사례에서 함의를 가져오고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연구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들은 잠재적 연구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교육 연계 방안

본 공동연구는 한국사회 내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제를 다루므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고등학교의 진로탐색과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이동/이주, 이주민과 탈북민 이해에 관한 대중강연, 교원 대상 강연을 통해 연구성과를 교육과 연계시킬 것이다. 본 연구단의 연구성과가 대학연구소와 지역 탈북민, 통일 관련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기관들과 통일과 이주와 관련한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포용적 미래 한반도로 가는 방안을 논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5. 기타사항

6. 추진일정

1차년도 과제목표	이동통치, 이주의 젠더화, 정체성 정치를 통한 통합적 이론 탐색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2.7.1.~2023.3.31. (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통일 독일 사례, 이주민 연구의 개별 접근 비판 - 이동통치와 사회적 항해 이론 연구 - 이주의 젠더화와 인구학적 이론 연구 - 정체성 정치의 역동성 이론 연구 	문헌연구 이론적 고찰 사례연구 파일럿 현장조사

2차년도 과제목표	현장 연구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3.4.1.~2024.3.31.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과정과 결과 분석 - 통일 전환 과정의 개인적 내러티브 분석 	아카이브 분석 영화, 문학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 이주민의 노동시장참여, 창업, 조직활동 연구(탈북민, 조선족) - 탈북민의 1.5세대, 2세대의 경제활동 - 탈북민과 다른 이주민의 비공식 노동 분석 - 출발지에 끼치는 영향 분석 - 미래 한반도 여성 이주 관련 사례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조선족 여성 돌봄노동) - 한국사회의 포용문화 분석 	현장조사 참여관찰 심층면담 미디어 분석

3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4.4.1.~2025.3.31. (12개월)	방안과 과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고령화 현상과 한반도 개방의 필요성 - 한국의 다문화 방식의 비판적 재개념화: 초국적 개방주의 	

	- 사회통합의 현실 진단과 가능성 탐색 - 사회통합의 정책 방안 구축	

3년과제 4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5.4.1.~2026.6.30. (3개월)		

7. 참고문헌

Sébastien Bourdin (2013) A geographical approach to economic convergence

Kudva N (2009) The everyday and the episodic: the spatial and political impacts of urban inform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41(7): 1614-1628.

Mukhija V and Loukaitou-Sideris A (2015) Reading the Informal City Why and How to Deepen Planners' Understanding of Informal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35(4): 444-454.

Roy A (2005) Urban informality: toward an epistemology of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1(2): 147-158.

Andreas Piederstorfer(2011):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통일전략 제11권 제3호, 281 - 323.

김창권: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최승호(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https://www.demogr.mpg.de/mediacms/123_main_MPIDR_Familie_und_Partnerschaft_Ost_West.pdf
https://www.demogr.mpg.de/mediacms/123_main_MPIDR_Familie_und_Partnerschaft_Ost_West.pdf

이규영 (2020).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 *신아세아*, 27(3): 18-30

이상림 외 (2012),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보건사회연구원.

정형곤 (2020)-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지영 (2020). 독일통일을 통해 본 남북한 인구통합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24(2), 75-102.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21),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stand der Deutscheneinheit, 2021* (Berlin: BMWi, 2021),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Dossier: Lange Wege der Deutschen Einheit*. Bonn: BPB. p.350
Charles Wyplosz 2018, “Germany: The reluctant leader of the euro area” in Dailia Marin eds. 2018.
Dailia Marin eds. 2018, *Explaining Germany’s Exceptional Recovery*, CEPR Press.
Davide Cantoni, Felix Gagemeister and Mark Westcott, 2018, “Voting for the far right Germany”, in Dailia Marin eds. 2018.
Dietmar Harhoff and Monika Schnitzer, 2018,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in Germany 2000 to 2017” in Dailia Marin eds. 2018.
Fabio Ghironi and Benjamin Weigert, 2018, “Germany did not pursue fiscal devaluation” in Dailia Marin eds. 2018.
Guntram B. Wolff, 2018, “Germany’s current account surplus and corporate investment” in Dailia Marin eds. 2018.
Harold James 2018, “The Franco-Germanu relationship” in Dailia Marin eds. 2018.
Jens Suedekum, 2018, “The China shock and the rise of robots : Why Germany is different” in Dailia Marin eds. 2018.
Lucio Baccaro, 2018, “The flexibilisation of German industrial relations” in Dailia Marin eds. 2018.
Merkel, Wolfgang, Kollmorgen, Raj et al. eds. (2019), *Handbook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xford et al.: Oxford University Press.
Sébastien Bourdin (2013) “A geographical approach to economic convergence : Exploring regional dispariti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ir evolution”, In *L’Espace géographique* Volume 42, Issue 3, 2013, pp. 270-285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Statistik Dossier “30 Jahre Deutsche Einheit”*, 09/2020, DESTATIS.
Vihalemm, P, et al. eds. (2018)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European Social Transformations*. Abingdon/New York: Routledge

Andreas Piederstorfer(2011): 통일전략, 통일전략 제11권 제3호, p. 281 - 323.

Beck, Grit (2009) *Wandern gegen den Strom: West-Ost-Migration in Deutschland seit 1990*. Dissertation

Engfer, Uwe (2017) Ruhestandsmigration und Reurbanisierung: Trends in Deutschland 1995-2012. *Raumforschung und Raumordnung*, Vol.76 (1), p.35-49,

Geis, Martin (2005) *Migration in Deutschland : interregionale Migrationsmotivatore*n. Wiesbaden : Dt. Univ.-Verl.

- Mai, Ralf ; Scharein, Manfred (2017) Effekte der Binnenmigration auf die Bevölkerungsentwicklung und Alterung in den Bundesländern. *Die Bevölkerung in Ost- und Westdeutschland*, p.75-99.
- Milbert, Antonia (2013) *Auf der Suche nach dem guten Leben : geschlechtstypische Wanderungen in Deutschland*. Bonn.
- Pfaff, Simon (2009) Pendeln oder umziehen?: Mobilitätsentscheidungen in Deutschland zwischen 2000 und 2009.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012, Vol.41 (6), p.458-477.
- Raphael Emanuel Dorn(2016) *Alle in Bewegung : räumliche Mobilitä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0-2010*.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 Schlicht, Uwe (2004) Wenn die Intelligenz abwandert: Binnenwanderung und Geburtenrückgang erschweren die Bildungspolitik im Osten. *Recht der Jugend und des Bildungswesens*, 2004, Vol.52 (2), p.146-151.
- Schlömer, Claus (2009) *Binnenwanderungen in Deutschland zwischen Konsolidierung und neuen Paradigmen : makroanalytische Untersuchungen zur Systematik von Wanderungsverflechtungen*.
- Bonn : BBSR, 2009. Wintzer, Jeannine (2014) *Geographien erzählen : wissenschaftliche Narrationen von Geschlecht und Raum*. Stuttgart : Franz Steiner Verlag.
- Wolff, Sascha (2010) *Ost-West-Wanderung im wiedervereinten Deutschland :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Göttingen : Optimus.
- Anderson-Levitt, Katheryn M. 2012. "Complicating the Concept of Culture." *Comparative Education* 48(4): 441-54.
- Appiah, K. Anthony. 1996. "Race, Culture, Identity: Misunderstood Connections." In *Color Conscious*. K. Anthogny Appiah and Amy Gutmann e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 Brubaker, Rogers, Mara Loveman, and Peter Stamatov. 2004. "Ethnicity as Cognition." *Theory and Society* 33(1): 31-64.
- Chung, Byung-Ho. 2014. "North Korean Refugees as Penetrant Transnational Migrants." *Urban Anthropology and Studies of Cultural Systems and World Economic Development* 43(3): 329-61.
- Ha, Shang E. and Seung-Jin Jang. 2016. "National Identity in a Divided Nation: South

-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109-19.
- Lee, Soo-Jung. 2011.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4(1): 89-112.
- Park, Young-a. 2020.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Multicultural" or "Global" Citizens?" *Korean Studies* 44: 123-48.
- Shi-xu and Robert Maier. 2005. "Towards Multiculturalism in Discourse Studies," In *Read the Cultural Other: Forms of Otherness in the Discourses of Hong Kong's Decolonization*. eds. Shi-xu, Manfred Kienpointer, and Jan Servaes. Berlin, Germany: Gruyter.
- Son, Sarah A. 2016. "Identity, Security, and the Nation: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n Response to North Korean Defectors." *Asian Ethnicity* 17(2): 171-84.
- Song, Jiyoung. 2013. "Smuggled Refuge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North Korean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51(4): 158-73.
- Sung, Minkyu. 2015. "An Abuse of Culture: North Korean Settlers, Multiculturalism, and Liberal Democracy." *Asian Social Science* 11(4)
- 김성경. 2018. "북한출신자와 사회만들기: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문화정치* 5(1): 43-74.
- 김희경. 201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8(2): 529-62.
- 서유경. 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1(2): 301-27.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 97-115.